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0월 23일(금)
(윤력 9월 7일)
Пятница
23 октября 2020г.
№ 41 (11690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러수교30주년기념' 한국어말하기 대회가 사할린에서 개최되었다.

(배순신 기자 촬영)

사할린국립대, "예비 대학생 학교" 시작

지난10월 21일(수)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새로운 진로 지도 사업 일환으로 <예비 대학생 학교>개교식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전공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비 대학생 학교>는 사할린국립대학교와 사할린주 교육부의 공동 사업이다. 현재 이 학교에 흠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10학년과 11학년 학생 150여명이 등록했다.

"미래의 직업 선택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사전 지식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며 소홀히 할 수 없는 진지하고 책임감이 따르는 단계입니다. 성인기의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안녕은 올바른 미래 직업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며, 그것을 잘 탐색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마리아 간첸코와 총장 대행이 환영사에서 전했다.

고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특성화학교의 업무, 대학 산업 파트너의 마스터 클래스 교육, 인터랙티브 클래스, 대학 지도교사의 인기 과학 강의, 사할린국립대학교 교수진과의 친교, 공동 프로젝트, 과학 실험실 및 센터 견학 등이 있다. 또한, 학생들은 "사할린국립대학교 올림피아드(경시대회)" 과목을 이수하고 사할린국립대에 입학하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인기 있는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대학 전반의 행사들에 참여할 것이다.

일부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지자체 학교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으며, 모든 방송은 사할린 국립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 전원에게 수료증이 수여될 것이라고 사할린국립대학교 보도부에서 전했다.

사할린, 수확기 종료

사할린 지역에서 수확기 막바지에 이른 많은 농장들이 감자 품종 소식을 알려졌다. 농민들은 계획보다 3천 톤이 많은 4만 4천 톤 이상의 감자를 수확하였다.

감자 생산량 순위 상위권으로는 "쑤호즈 켄플리츠니" (헥타르당 40,000kg), "쑤호즈 유즈노 사할린스키"(헥타르당 30,000kg), "쑤호즈 자레츠노예"(헥타르당 27,500kg) 등이다. 개인 농민 중에서 최다 수확량은 <루시>농장(지도 두 하닌 아.아.), 체르노바이 이.베. 농장, 페냐즈 아.베. 농장, 아르히보브 옌.게. 농장, 강 웨.엔. 농장 등에서 나타났다.

동시에 비트와 당근 수확도 계속되고 있는데, 전체 채소 수확량이 작년보다 5%나 높게 나왔다. 비트 및 당근의 최대 수확량은 "쑤호즈 유즈노사할린스키"와 "쑤호즈 켄플리츠니"에 의해 달성되었다.

양배추 수확도 진행되고 있는데, 양배추 수확은 11월 1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농업기업과 농장들은 올해 소비시장에 2만 톤 이상의 당근과 비트, 양배추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할린 학생들, 10월 26일 방학 마쳐

조기 방학이 끝나는 10월 26일부터 1학년~ 8학년까지의 모든 유즈노사할린스키 학생들이 등교를 재개해 출석하여 학업을 이어간다. 10월 19일부터는 이미 9, 10, 1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고 있다.

시교육관리국은 이 결정을 내리기 전, 교육기관 교장들과 협력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조기 방학 전에 비해 학생들의 발병률은 3.2%에서 2.7%로 낮아졌다. 이처럼 정규 교육을 재개함과 동시에 9월 1일 이후 수립된 학교 출입구 구분, 수업과 휴식 일정, 학생 급식 일정 및 공기 순환기 설치, 세정제 배치, 마스크 착용 등의 정부 대책도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키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시교육관리국은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발병율이 증가할 경우, 교육기관들은 연방 소비자관리 및 인권 보호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할린주 학교 대다수가 정규 교육을 실시하지만, 일부 학교는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고 전해졌다.

단신

사할린주, 6만1,000톤의 연어 어획

오늘날 사할린주 기업들의 연어 어획량은 태평양 연어 60,986톤이다. 이는 올해 권장 어획량의 68%에 해당한다.

주수산청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연어 총 어획량 중에서 송어(3만3,000여톤)가 가장 많다.

현재 지역 업체들은 참연어(케타) 어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어종은 이미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2만7,000t이 잡혔다.

홍연어(네르카)와 은연어(키주츠)의 총 어획량은 큰 변동없이 각각 810.68톤과 426.45톤으로 드러났다.

연어 어획은 현재 남쿠릴 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할린주의 연어 어획기는 10월말까지다.

사할린 지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팬데믹 이후 총 7,027명

최근에 러시아 전 지역은 물론, 사할린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 주에 하루 83명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1일 사할린에서 하루에 76건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127명이 퇴원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에서 첫 확진자 발생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7,027건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4,855명이 회복, 1명 사망, 2,17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할린주, 관광분야 연수 개최

10월 23일(금) 유즈노사할린스키시 '산타'호텔에서 '사할린주 접대법' 연수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 산업, 팀 및 돌봄 서비스 자원과 잠재력에 대해 다룰 것이며, 연수 참여에는 관광사업자와 관광분야 개인사업자, 호텔리어, 요식업자들을 초청한다.

해당 행사는 사할린 지역 관광청이 "나의 비즈니스"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행사 프로그램에는 전문가의 강의, '서클' 방식을 이용한 그룹 토론,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 연습문제 및 사례 해결방안 제시 등이 있다.

행사 참여는 무료지만 최대 참여 인원은 제한되어 있다.

사할린 남동부, 지진 발생

10월 21일 0시 56분 사할린 남동부에서 규모 3.5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eqalert.ru 서비스에 따르면, 진앙지는 스워보드니콥 지역으로 진원은 19.6km 깊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호츠크를 비롯한 주변 마을 주민들은 최대 3의 진도를 느낄 수 있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한-러 수교30주년기념' 한국어말하기 대회 개최

한글날에 한국어실력을 평가

일반인부에서 윤선자(73세) 어르신 1등상으로 3만 루블리 받아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러 수교30주년기념' 한국어말하기 대회가 사할린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사할린국립대학 강당에서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 및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주정부, 교육부가 주최하고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어과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말하기 대회 참여 대상으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할린 주민이었다.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부는 한국어를 배우는 초/중/고/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었는데 초급 부문과 중급 부문으로 나뉘었다. 일반인부는 한국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코르사코브, 크라스노고르스크, 돌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과 일반인 총 29명이 발표했다.

이들은 3가지 주제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주제는 <내가 아는 한국>, <한국-러시아 문화 비교>, <한국과 러시아(사할린) 간 협력 방안>이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을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췌와 장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 사할린국립대 마리아 간첸코와 총장 대행이 환영했다.

"이 대회는 20년 넘게 개최되었으며, 수년간에 5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연방 학교에서 제 2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

한 사할린국립대학교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사할린 학교들에서 이 교육을 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동료들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아나스타시야 키크췌와 교육부 장관이 전했다.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말하기 대회를 한글날에 하여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하여 양국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제품과 러시아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양국의 발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할린은 한러 수교에 의해 과거 일본에 의해 징용은 한인동포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이 깊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교역액은 현재 연 250억불 수준이고 인적교류는 연 1백만명 수준입니다.

지난 9월 러시아 교육과정 심의회에서는 한국어를 러시아 정규교육과정상 제2외국어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하였는바, 한국어 학습은 대학 진학 및 교직 진출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한러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박기동 소장이 언급했다.

이날 한국어 초급 부문에는 13명, 중급 부문에는 7명, 일반인부에는 9명



이 나서 멋진 한국어실력을 발휘하였다. 이들의 실력을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김야나 선임 참사관, 사할린한국어교사 협회 회장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내용, 발음, 태도, 추가질문에 대한 대답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

초급부와 중급부에는 주내 학교 학생들과 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야 학생들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초급수준부에는 크나제바 안나(7학년, 주제: 내가 아는 한국)가 우승했고, 중급 수준 학생부에는 김현아(9학년) 학생이 한러 간 협력 방안을 잘 살펴봐 최우수상을 따냈다. 또한 이날 동양김나지야의 베셀코 제니스가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기상을 수상했다.

그외 특별상도 많았다. 경연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경쟁자들에게 치열한 경쟁이었다. 이날도 일부 학생들은 심사위원들의 결과발표에 만족하

수상 기록

학생부:

- 가) 초급 한국어 수준 그룹
 - 1위 - 크나제와 안나
 - 2위 - 브라즈노와 알료나
 - 3위 - 이성금
- 나) 중급 한국어 수준 그룹
 - 1위 - 김현아
 - 2위 - 최 나제즈다
 - 3위 - 나린스카야 안나

일반인 부:

- 1위 - 윤선자
- 2위 - 윤옥희
- 3위 - 박정순

지 못하여 울기도 하였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생님들은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기회는 많다»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부가 생겼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참가했다. 1등은 1947년생인 윤선자 씨가 했는데 그는 요즘 사할린한국교육원의 문화주부반을 다니고 있다. 발표 주



제는 가족사를 통한 내가 아는 한국이었다. 2등을 한 10학년생인 윤옥희 학생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는데, 자습과 과외선생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 학생의 꿈은 한국 대학 진학이다.

이날 모든 참가자들이 사할린교육부 감사장과 기념품,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기념품, 수상자들은 상장, 상품권과 상금을 받았다.

또한 사할린주교육부에서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와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그리고 한국어말하기 대회 참가자들의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한국어 교수, 교사, 강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 준비와 진행은 전통적으로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수(임엘비라, 코르네예와 인나, 최 카리나), 대회 사회는 사할린국립대 워로비요와 다리야와 김 알렉세이 학생이 맡았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코르사코브, 선행과 건강을 위한 행사 열려

10월 17일 콤포스몰스크야 광장의 와카나이 소공원에서 코르사코브 주민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점심식사와 HIV 검사가 제공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은 비영리단체 '생명을 선택하라'로 자원봉사자들이 3개월째 매주 토요일 '선행의 그릇'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봉사자들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며 대화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에이즈센터와 코르사코브 중앙구역병원, 지역 청소년 공공단체 자원봉사 클럽 '우리 함께'의 대표 등이 후원했다.

이날 의료진은 진료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자원봉사 클럽 '우리 함께'의 자원봉사자들은 행인들에게 HIV 예방에 관한 정보 자료와 HIV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코르사코브 구역행정부는 해당 행사 기간 동안 16명이 HIV테스트 외에도 종합비타민 패키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Акцию добра и здоровья провели в Корсакове

Жители и гости Корсакова 17 октября в сквере "Ваканай" на Комсомольской площад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бесплатную порцию горячего обеда и пройти тест на ВИЧ.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а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ыбери жизнь", волонтеры кото-

рой вот уже три месяца каждую субботу проводят в округе акцию "Тарелка добра". Волонтеры сами готовят еду и раздают ее всем нуждающимся. Они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тут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накормить людей, но и дать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пообщаться.

В этот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держ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областного СПИД-центра,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олонтерский клуб "Мы вместе".

В этот день медики провели консультацию, ответили на интересующие вопросы всех, кто решился на тест. Также волонтеры клуба "Мы вместе" вручали прохожи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ВИЧ-инфекции с адресами и номерами телефонов организаций, где можно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За час акции 16 человек не только прошл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о и получили упаковку поливитаминов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своего здоровь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ергей Шойгу, сажали в садоводстве в Корсакове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 этот день в садоводстве в Корсакове. Сергей Шойгу, глава Минобороны, посетил садоводство в Корсакове. Он вместе с жителями садоводства сажал деревья. Шойгу отметил, что садоводство в Корсакове имеет давнюю историю. В 1995 году, после землетрясения, было создано садоводство, которое сейчас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Шойгу пообещал, что Минобороны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садоводство в Корсакове.

저자에 따르면, 그때 (벵체고르스크 지진 후 복구 작업 때)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기술 '침묵의 1분'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침묵의 1분이란 문자 그대로 1분이 아니라 30분 또는 한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데, 모든 구조 활동과 장비가 동시에 작동을 멈추고 폐허 위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때 구조대원들은 잔해 아래 있는 생존자들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그들에게 응답해달라고 요청한다. 저자는 이렇게 처음 멈

췌던 순간, 생존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24개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후,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에서 2,364명을 구조해냈으며, 이 중 406명이 생존하였다. '이즈베스티야'신문은 출판물 '어제에 관하여'가 1,000부 출판되었으며, 저서 분량은 300페이지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사할린에서는 매년 5월 말 사할린 북부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지진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Сергей Шойгу напомнил, что минута тишины роди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Нефтегорске

В Русско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м обществе презентовали книгу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Сергея Шойгу «Про вчера». В издании нашлось место и для воспоминаний о событиях мая 1995 на Сахалине, в Нефтегорске. Город тогда полностью разрушило землетрясени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РИА Новости.

По словам автора, именно тогда родилась простая, но эффективная технология — минута тишины. Минута не в буквальном значении, пауза могла длиться и полчаса, и час.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кращают работу все механизмы, вся техника, и над руинами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почти полная тишина. Спасатели внимательно слушают и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просят отозваться живых людей, находящихся под завалами. Хотя бы постучать. После первой же такой паузы, пишет автор, удалось определить два десятка точек, где были люди.

Тогд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из-под руин домов спасатели извлекли 2364 человека, из которых в живых остались лишь 406. «Известия» сообщили, что издание «Про вчера» вышло в свет тиражом 1000 экземпляров, его объем — более трехсот страниц.

На Сахалине ежегодно в конце мая отдают дань памяти жертвам того страшного землетрясения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7면에 계속)

〈역사의 얼굴〉, 김지연 사진작가 개인전 열려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사할린의 한인들,
일본의 조선학교 등 사진에 담겨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0월 13(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김지연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역사의 얼굴〉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이날 사할린주미술박물관 을가 무라토와 관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과기동 소장, 러시아 외무부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블라디미르 노소브가 개막식을 찾아온 관중들을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전시회가 러·한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하는 행사라고 강조하고 김지연 작가의 사진 세상을 잘 둘러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소수민족의 아픔과 이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시회 큐레이터인 하이 을가 극동 예술 수석 연구가는 "김지연 작가는 프랑스 국립예술대학과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서 인권과 재외동포 역사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작가는 1998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만나며 다큐멘터리 사진에 접근했다. 현재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다.

민족의 이산, 디아스포라 문제를 큰 카테고리로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사할린의 한인들, 일본의 조선학교 등 흩어져 있는 우리민족에 관해 20여 년간 작업을 해 왔다.

이번 전시는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찍은 사진을 전시한다. 전시에는 중국, 중앙아시아, 일본, 러시아 (사할린)의 사진이 출품되었다. 김 작가는 현지 생활상을 반영하고, 한국말을 가르치거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장소가 된 조선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그는 1999년과 2012년 두 번 중국을 방문했다. 일련의 작품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다룬다. 그 중에는 1930~1940년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려 떠난 사람들의 후손들과 일본의 탄압을 피해 이주후 정착한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일련의 사진은 극동과 사할린 조선인의 극적인 역사에 대한 것이다. 소련 시대에 극동(연해주 인근)에서 중앙 아시아로 강제 추방된, 1930년대에 살아남은 이들은 끈질긴 생활력을 보여 주었다. 김지연 작가는 "1세대 한인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간직한 사할린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모국과 단절되어 가족들에게 살아서 돌아갈 수 없던 그들은 한 줌의 재가 되어서야 백발의 자녀와 어른이 되어버린 손자들에게 안겨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조선의 얼을 지키는 중심이 되고있는 조선학교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에 특히 감명 받았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태로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지연 작가는 영상을 통해 개막식 참가자들에게 "저의 사진들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할린도 그런 계기로 방문하게 되었고, 이렇게 전시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은 강인하고 또 우



리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는민족입니다. 사할린동포들 역시 슬픈 역사를 잘 극복하고 굳건하게 살고 계시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역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문화적 전통, 인간의 가치, 이웃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임을 보여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김지연 작가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다시 사할린에서 반갑게 만나고 싶다고 했다.

김지연 작가는 KIN(재외동포연대)의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전달 방문단원으로 여러 차례 사할린을 방문했고 한국에서 〈사할린 한인〉사진집을 낸 바가 있다.

김지연 작가의 개인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린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출장소장, 사할린 북부 지역 한인회 방문



포로나이스크(왼쪽), 마카로브(오른쪽) 한인회

과기동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장은 9.15-16, 10.14-15, 각각 사할린 북부 지역 한인사회를 방문하고, 1세 동포들을 위한 코로나 방역물품(마스크와 손소독제)을 전달하였다. 9월에는 서북부 지역의 토마리와 우글레고르스크를, 10월에는 동북부 지역의 포로나이스크와 마카로브 지역을 방문하여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한인회 운영 현황 및 동포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관련 건의·민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동 계기에 포로나이스크 지역에 위치한 '레오니도보 한인 학살 추모비'에 헌화·참배하고, '마카로프 시립 향토박물관'의 한인 전시실 등을 견학하였다.

(본사기자)

(사진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제공)



토마리(위), 우글레고르스크(아래) 한인회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산을 넘는 법

지옥과 천국을 잇달아 맛보는 방법이 있다. 자전거로 산을 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까지 도로가 났다는 말을 스물다섯에 처음 듣고 도전했다가 십오 킬로미터가 넘는 오르막길에서 지옥을 맛봤다.

등산은 걸어 올라온 만큼 걸어 내려가야 해서 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자전거는 마음만 바꾸면 당장 오르막길을 포기하고 신나게 달려서 내려갈 수 있다. 중력뿐 아니라 유혹에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뜻인데 오르막길이 힘들수록 유혹은 달콤하고 강해진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를 때는 자전거 속도가 걸음보다 느려지기도 한다. 그렇게 몇 시간을 오르면 눈 못 뜨게 땀이 흐르고 다리는 끊어질 것 같고 심장과 폐는 터지려고 한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싶어 스스로에게 욕이 나올 때도 있다.

힘들수록 고개를 들어야 한다. 주위가 아름다우면 힘이 덜 든다. 안 드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장 고생을 하는 다리는 눈이 없어 경치를 볼 수 없다. 다리를 위한 방법은 따로 있다. 1등을 해야 하는 경주가 아니고 혼자서 떠난 여행이니 여유 있게 마음먹고 기어를 가볍게 하여 느긋하게 오르는 것이다. 다리는 가장 힘이 세지만 그만큼 아껴야 하는 부위다. 한번 탈이 나면 치명적이지 단기간에 혹사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좋다.

높은 산을 자전거로 오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땀 흘려 번 돈이 소중하듯 땀 흘려 오른 산은 쉽사리 내려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영원히 정상에 머물 수는 없으니 결국 내려가야 한다. 중력에 자전거를 맡기면 달팽이처럼 올라온 산을 새처럼 내려갈 수 있다. 힘들어 올라온 사람에게 즐겁게 내려갈 권리가 있지만 잘 나갈 때 더 위험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튼튼한 브레이크 없이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없다.

가장 아름다웠던 산은 역시 한라산과 설악산이었다. 한라산의 1100도로와 설악산의 한계령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듣자하니 중국에는 사흘을 올라 만나절을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다고 하던데 그 곳에도 가보고 싶다.

예전에는 무등산도 자전거로 오를 수 있었는데 최근에 국립공원이 되면서 금지되었다. 사고방지를 위해 당연한 조치다. 그러니 어떤 산이든 오를 수 있을 때 올라야겠다. 냉온탕을 오가듯 지옥과 천국을 잇달아 맛보는 즐거움은 좀처럼 포기할 수 없다.

광주에서 김남중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СахГУ провели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9 ок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ено к празднованию 30-лет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Дню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Еще од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конкурса стало то, что в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или новую категорию участников. Попробовать силы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но и все желающие, изуч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уст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темы: "Корея, которую знаю только я", "Сравнение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частие приняли 29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13 школьников, 7 студентов и 9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меш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участников. Все выступления оценивались отдельно по заранее разработанным критериям: содержание, произношение, артистизм 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жюри.

— Этот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больше 20 лет, и за эти годы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500 человек. Напомню, чт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изучения втор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ах.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одготовке замечательных кадров, мы може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данную задачу в шко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всей души благодарю за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желаю успехов участникам конкурса, преодолеть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и стать надеж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своих коллег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выступил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Сегодня наше мероприятие имеет более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так как мы отмечаем в этом году 30-лет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сегодня День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За эти 30 лет Россия и Корея имели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роходил обмен автомобилями, электротоварами, а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наука и технолог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25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в год. Думаю, что у наших стран есть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развиваться еще больше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тил Квак Ги Дон, консу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в этом году начинает разрабатывать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принимаем для себя очень серьезный вектор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Мы предполагаем, что в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будут изучаться два языка — это будут базовые компетенции для всех наших студентов. Это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еспроста, потому что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роить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овестку, чтобы работать в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ах, совершенно необходимо знать историю и культуру наших друзей и коллег.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знать язык. Именно общение на одном языке позволяет строить очень крепкие и плодотворные отношения. Поэтому очень сложно переоценить важность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и очень сложно переоценить важность языков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ам врио ректор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СахГУ Мария Ганченкова.

Семиклассник из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енис Веселко впервы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н изучает в школе уже полтора года и для него это не просто школьный предмет, а хобби.

— Наш восточный сосед — Корея, и знать чужую культуру очень важн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ля меня — это многое —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о чужом языке, чужой культуре. Я немного, конечно, волнуясь, но мне сказали не волноваться и тогда все получится. Мы с учительницей готовились целый месяц. Сначала репетировали текст, потом готовили презентацию. Они посвящен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м Кореи и России. Сначала мы говорим о том, что сегодня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в 2020 году — 30-лет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Потом говорим о том, чт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и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о культуре и новых словах, — рассказал Денис Веселк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членов жюри ста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и Бён Иль. Вместе с ним стар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оценивали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на Ким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стровной ассоциации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нна Корнеева.

Участников наградили грамотами, ценными подарками и поощрительными призами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бедители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 1 место — Анна Князева;
- 2 место — Алена Вражнова;
- 3 место — Ли Сен Гым.

Победители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 1 место — Ким Хен А;
- 2 место — Надежда Че;
- 3 место — Анна Нарынская.

Победители в смеш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 1 место — Юн Сен Дя;
- 2 место — Юн Ок Хи;
- 3 место — Боку Ден Сун.

(А.Килимов, ИА САХКОМ)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едставили фотовыставку о корейцах мира

"Странствующая нация" — такое название корейцы получили неслучай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столетий в поисках лучшей доли они осваивали новые земли. Сегодня 7 млн корейцев живут за пределами родины, да и родины у народа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тало две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Фотовыставка "История в лицах" была открыта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ш регион и Южную Корею связывают стабильно развивающиеся торгов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о более всего — 25-тысячн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живущая на островах. Некоторые из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пали в объектив фотографа Ким Джи Ён.

Как и любой арт-проект, выставка "История в лицах" прежде всего открывает человека, знакомит с личностью художника, отметила куратор проекта Ольга Хай:

— Фотодокументалист Ким Джи Ён, получив блестящ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о Франции и Корее, посвятила свою жизнь освещению событий жизни простых людей — людей, живущих в условиях бедности, войн, природных катастроф, например,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 Фукусиме. Более 20 лет она путешествует по странам и континентам, исследуя социальную тематику. Только человеку неравнодушному, с открытым сердцем под силу реализовать столь непростые творческие замыслы.

Катаклизмы XX века, приведшие к колоссальным человеческим трагедиям, обусловили магистр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ее творчества. Беженцы в Мьянме, жизнь городской бедноты и мигрантов в самой Корее, судьбы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рам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эти непростые темы волнуют автора, фиксирующего болевые точки жизни и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сторона дела не так ее заботит, как полнота воплощения замысла.

Правда, глядя на снимки Ким Джи Ён конкретно на этой выставке, молодой зритель, не обремененный грузом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едва ли улови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ассоциации. Потому что на снимках запечатлены счастливые люди: пожилые — в силу мудрости и жизненного опыта, дети в школе, поле или на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е с лучезарными улыбками — потому что дети. Да и если бы не надписи к фото, не факт, что зритель углядел бы разницу и определил место действия. Ведь раздробленный волею судеб народ — един, сохранил самобытность, верность древним традициям и "лица выражени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жительства. Притом, что экспозиция



сформирована по итогам фотозаписей по местам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итае, Японии,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е.

И по-хорошему фотографии стоило бы сопроводить историями-комментариями, иначе глубинный смысл нивелируется. Так, глядя на снимок "Колхоз имени Ким Пён Хва", мало кто догадается, что изображенный на нем монумент увековечил память его многолетн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торый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поднимал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в Приморье, куда корейцы вернулись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И, собственно, сам снимок документирует историю репресс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рейцев в предвоенные годы и дальнейшего выживания... А современными сахалинскими акцентами в выставочной экспозиции стали его огромные снега и юные барабанщики из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 Создавая серию работ на Сахалине, я узнала, что мо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любят свою культуру и традиции. На меня произвело впечатление то, как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одолевают свою печальную историю и живут хорошо и дружно, — сказала в видеообращении к посетителям выставки Ким Джи Ён.

13 ноября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запустят новый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 федеральным коллег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узеем Востока (Москва), — "Восток. Другая женщина". "Женская" тема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а через призму уникальных коллекций живописи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ндии, Кореи, Японии, Китая, Монгол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Марина Ильина, ИА САХКОМ)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оформление окончани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 тема переговоров с КНДР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оформление окончани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 одна из те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хеньяно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в ответ на просьбу радиостанции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недавнее заявление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Со Хун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изита в Вашингтон он сказал, что официальное объявление об оконча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еразделим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отметил,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поддерживает это заявление и готова проявить гибкость ради достижени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 учётом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м саммите в Сингапуре. США стремятся к вовлечен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ради светлого будущего для её народа.

Президент РК: Наступило «золотое врем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Ослабление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ступившее в силу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ослужит «хорошим шансом для повыше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на еженедельном совещании со своими старшими секретарями.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илий по оживлению экономики, отметив, что её полн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 в случа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В этом смысле сейчас золотое врем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н призвал стимулировать частные инвестиции, удели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литике,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действие развитию искусств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Президент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усилия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потеряли активность из-за роста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начавшегося в августе.

27 парламентариев нарушили избирательн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7 действующих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предстанут перед судом по обвинению в нарушении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генеральной прокуратуре, это на 2 депутата меньше, чем после предыдущи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2016 года. Среди 27 обвиняемых 9 депутатов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11 – от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Народная сила, 5 – независимых депутатов, по одному – от оппозиционных Открыт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и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Если обвин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едущ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подтвердятся, число имеющих у неё мест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менее ста,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рава вето. По данным прокуратуры, к уголов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нарушение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привлечен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874 человека, включая депутатов. Это на 9,5% меньше, чем в 2016 году. 36 человек арестованы.

Фильм «Ноктюрн» режиссёра Чон Гван Чжо удостоен приза 42-го ММКФ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Чон Кван Чжо «Ноктюрн» удостоен «Серебряного Георгия» – главного приза конкурса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ов на 42-м Москов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ММКФ) этого года. Герой фильма – Сон Хо, страдающий аутизмом, но обладающий исключительными музыкаль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Его мать посвятила свою жизнь тому, чтобы сделать из сы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узыканта. Приз был вручён директору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Москве Ви Мён Чжэ, поскольку сам режиссёр Чон Гван Чжо не смог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зы Москов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присуждаются в трёх номинациях: основной конкурс, конкурс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кино и конкурс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В этом году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л с 1 по 8 октября с соблюдением карантинных требований с целью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COVID-19.

Группа BTS заняла два верхних места в чарте синглов Billboard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ойз-группа BTS вновь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главном чарте синглов Billboard с ремиксом на песню Savage Love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евца Джейсона Деруло и новозеландского продюсера Jawsh 685.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эта песня занимала восьм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синглов. Ещё одна песня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Dynamite осталась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продажам цифровых версий песен Dynamite продолжает доминировать в музыкальной индустрии США седьм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Billboard, скачку Savage Love с восьмого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способствовал выпуск его последних версий с участием BTS. Она является первой группой, которая за более чем десять лет заняла два верхних места в чарте синглов Billboard. (RKI)

Сюрприз в темноте

Пхеньян удивил секретным парадом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вооружениями и нов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Зарубежным экспертам предстоит еще потратить много времени, чтобы в деталях разобраться в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внезапном параде в КНДР новейших вооружениях. Но вывод однозначен: Пхеньян удивил уровнем развития сво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оружия, причем прогресс заметен на самых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 от налобных фонариков и формы спецназа до новейших видов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Военные парады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техники и массовыми демонстрациями – дело для Страны чучхе не такое уж редкое. Но в этот раз поступили необычно: парад в честь 75-летия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прошел во тьме, примерно с часу до трех ночи. Прямая трансляция не велась, иностранцев, включая дипломатов, не допустили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вообще, и только вечером 10 октября по центральному ТВ КНДР показали видеозапись парад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 Ким Чен Ын, который выступил с речью в мирном ключе. Ким никого не обвинял, не было упоминаний ни про "американских империалистов", ни пр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арионеток", а речь, в основном, строилась вокруг ситуации внутри страны. Лидер КНДР признал, что из-з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и бушующего за пределами Страны чучхе коронавируса ситуаци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простая. В целом он выглядел довольным: постоянно улыбался, оживленно беседовал со стоявшими рядом с ним генералами, заливисто смеялся над их шутками и 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охожден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техники, часто прибегая к помощи бинокля, чтобы получше разглядеть детали.

Военные новинки появлялись на площади Ким Ир Сена от начала и до конца парада, включая ракеты, бронетехнику и боевое облачение солдат.

А та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о чт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и изучать. Вряд ли Ким увидел что-то новое для него лично, но вот зарубеж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сто подпрыгивали на месте при каждой новой сцене, когда камера начинала показывать входящую на площадь Ким Ир Сена технику. Новинки одна за другой появлялись на площади: от обмундирования солдат и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до самых тяжелых ударных систем. В парад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овые виды систем ПВО, крылатые ракеты, новейшие противотанковые, противопехотные,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системы, знаменитые гигантск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СЗО калибром 600 мм.

Но "гвоздем программы" стал новый "ребено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акетостроения. По площади Ким Ир Сена на 11-осных пусковых транспортерах проехала новая, до этого никогда не демонстрировавшаяся и са-

мая крупная из всех ракет КНДР. Ее длина - 23-24 метра, что на два метра больше "Хвасонов-15",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считались самой большой ракетой КНДР с дальностью до 13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такой эффектный парад стал своего рода компенсацией или попыткой отвлечь народ КНДР от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Многие из обещанных и широко рекламировавшихся в СМИ крупных строек к юбилею партии не удалось завершить. Но,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о части развит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НДР доказала, что не стоит на мест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Мнение эксперта
Владимир Хрусталеv , эксперт Российского сов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КНДР проводит военные парады регулярно, но в этот раз очень удивило число новых систем. Отдельно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разработчики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КНДР стараются создавать теперь не только по принципу "главное, чтобы оно ездило и стреляло", но заметно стремление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современны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техническим и тактическим тенденциям. Если говорить по конкр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то бросилось в глаза, что в КНДР активно занялись не только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и смежным вооружением, но и "обычными" видами,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развивать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наряжение и форма пехоты КНДР явно следует негласному базовому мировому стандарту: разгрузочные жилеты, бронежилеты, каски из композит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коленник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связи и т.д.
Но, безусловно, главное и самое мощное – это нов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Самая новая большая ракета – это тяжелая мобильная жидкостная МБР, имеющая весьма нетривиальную концепцию. Она очень громоздка и наверняка требует приличной предстартовой подготовки, а потому уязвима. Скорее всего, что именно для этой МБР на стендах полигонов КНДР в декабре 2019 г. и испытывались некие новые двигатели большой мощности и дл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работы.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больш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д обтекателем этой ракеты. С таким дизайном эта МБР будет способна нести не только просто ядерный блок, а, например, тяжелый термоядерный блок на мегатонны, а также еще ложные цели, либо несколько обычных ядерных блоков и ложные цели. Правда, сразу же надо оговориться: чтобы считать оружием, эта ракета еще должна полететь, а, насколько нам известно, испытания этой МБР пока не проводились.

IX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реевед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2-3 октября 2020 г. в Восточном институте — Школе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стоялась IX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реевед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которая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Центром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кафедрой кореевед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Академии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Academy of Korean Studies,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яда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вузов, а также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шла в смешанном формате – очном и дистанционном, с применением программы MS Teams.

На открытии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ветственные слова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конференции сказали директор ВИ-ШРМИ ДВФУ Е.В. Пустовойт,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н О Сунг Хван и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корееведения ВИ-ШРМИ ДВФУ Е.М. Ермолаева.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И.А. Толстокулаков представил пленарный доклад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ДВФУ.

Работ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водилась в оживленной, дискуссионной атмосфере на заседаниях четырёх секций: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и «Корея: экономика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90 человек; это были не только докладчики или почётные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но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отруд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коллеги из други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ВФУ.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единодушно отметили, что науч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проблемам Коре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являю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и авторитетной частью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пожелали успехов в развитии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ВИ-ШРМИ ДВФУ и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встретиться вновь на X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реевед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мае будущего года.

Нарушая сложившуюся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традицию, IX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реевед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шла не в мае, а в октябре, что связано со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юбилеем, который кафед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азднует в этом году – 25-летие создания Высшего колледжа корееведения на базе факультета корееведения ДВГУ. Четверть века назад 2 октября 1995 г.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открытия Высшего колледжа корееведения, ставшего результатом плодотво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ГУ и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финансово-промышленных групп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хап», возглавляемой г-ном Чан Чхихёком, чей отец, Чан Добин, был известным борцом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учёным и журналистом, несколько лет своей жизни проведши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здание колледжа стало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роектом.

2020 г. – важная веха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120 лет назад в Восточном институте, с основания которого началась истор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и правопреемником традиций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была открыта первая в мире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словесности и заложен мощный фундамент развития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За 120-летний период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из стен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ДВГУ и ДВФУ выпустились сотн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Корее, её языку, культуре, экономике и литературе. В память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4 сентября 2020 г. в ДВФУ была открыта памятная табличка.

В.С.Акуленко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ДВФУканд.истор.наук

Для созда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ищу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оров

Проект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всесезонного горного курорта в 32 километрах от аэропорта Ясный города Курильска представили 19 окт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оект включает создание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льф-поля, термальной лагуны, а также гостиниц общим номерным фондом 700 единиц. Инициатор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ъекта и одним из инвесторов выступила одна из лидирующих в отрасли компания «Роза Хутор».

— Наша компания обладает большим опытом в развити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и за последние полгода провела анализ проекта Итуруп Резорт. Мы подтверждаем рентабельность проекта. Его реализация позволит развивать Итуруп как одно из лучши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ест. Комплекс может стать, по сути, второй «Розой Хутор» только на другом конце страны,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 «Роза Хутор» Алексей Соловьев.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оценивается в 2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з которых около 15 миллиардов — частные инвестиции. Объем собственного капитала составляет 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проект приглашаются инвесторы, готовые вложить от 5% до 20% от объема собственного капитала, или от 100 до 8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Проект обладает хорошими финансовы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Внутренняя норма доходности составляет порядка 20 процентов. На проект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особый налоговый режим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доходной части может стать доход от круизного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Это около 400 тысяч гостей в год,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Лисневский.

Около 9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планируют направить на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том числе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22 километров автодороги Курильск — Горячеводский перевал, грунтовой трассы от деревни источников до бухты Садко, причального сооружения, магистральных сетей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водозаборных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увеличение мощности аэропорта.

—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рамках формируемого нацпроекта по туризму мы прикладываем усилия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Это может стать одним из успешных ключевых элементо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наряду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соинвесторов. Со стороны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есть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поддержка, чтобы запустить эту работу,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Валерий Дубровский.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вел заседание инвестсовета, поручил провести серию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оров, в том числе,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для знакомства бизнеса с предполагаемой территорией и объектам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Более 200 сем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еедут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в новостройку

Строительство 17-этажного дома по улице Поповича, 18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должно завершиться к 1 декабр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ход работ

на этом объекте, а также осмотрел будущую станцию скорой помощи на улице Бумажной.

Новостройка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готова уже на 85 процентов. В доме 207 квартир, предусмотрена подземная парковка. Сейчас идет устройство навесного вентилируемого фасада, внутренние отделочные работы, монтаж сан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установка витражей. Подрядчик (ООО СКФ «Сфера») идет точно по графику, чтобы новоселы смогли переехать до Нового года.

По заведенной традиции будущие жильцы осматривают свои квартиры на этап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Важно высказывать свои замечания и пожелания, и подрядчик их учтет. Возьмите карандаш и пройдите по каждой комнате. Вы въезжаете на долгие годы, нужно, чтобы во всем был порядок,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ращаясь к жильцам.

Светлана Разумовская после осмотра своей двух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ы осталась довольна. С мужем и сыном они переедут из аварийной двухэтажки напротив.

— Мы очень рады остаться в своем районе. Не придется менять школу, привычный уклад жизни. Мне вс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Большая прихожая — можно будет сделать вместительный шкаф. Ребенок больше всего переживал, что в детской не будет места для ударной установки. Но я теперь вижу, что все прекрасно встанет, — поделилась Светлан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завершает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Следующий шаг —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проблему за пять лет. Для ускоренного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планирует стать пилотным регионом в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Еще одним пунктом посещения стала строительная площадка новой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помощи. В одном здании объединятся три важнейшие оперативные службы — скорой помощи, медицины катастроф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 Правило золотого часа, когда мы должны прийти на помощь пациенту, будет соблюдаться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С помощью еди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ы будем сразу получ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свободных койках в стационарах, необходимых медикаментах и оборудовании. Если мы прогнозируем, что пациент тяжелый, тут же активируется санавиация и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о скорейшей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в областную центр, —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 Мы довольны тем, как ведутся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Это будет хороший подарок сахалин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скорой помощ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работают в стесненных условиях.

Объединенная служба расположится на площади 13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Здесь будут оборудованы крытая стоянка для машин скорой помощ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выездов бригад, комнаты отдыха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между вызовами и даже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агуна Буссе»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о экотуризму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на создание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х кластеров и развитие экотуризма в стране подвели в Туле.

За победу боролись 168 заявок из 32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бедителей объявила комиссия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вопросам природоохра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кологии и транспорта Сергея Иванова.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агуна Буссе» вошел в ТОП-10 и стал четвертым в списке лидеров.

— Вхождение проекта «Лагуна Буссе» в ТОП-10 конкурса означает, что 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ть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У нас появились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ить федеральное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иции и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омпетенции по обучению. Эт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улучшен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осуга островитян, привлечения туристов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турпродукта нового уровня,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Проект «Лагуна Буссе»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около 10 точек показа, входящих в популяр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которые уже сейчас являются объектами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бизнеса. Это символ региона — маяк Анива, а также мыс Птичий с его скалистыми арками, биризовые озера и другие уникальные природ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й кластер входит в зону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с особыми льготны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оров.

— Победа в конкурсе позволит нам организовать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с крупнейшими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и зарубежными игроками бизнеса в части развития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коммерче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 нас уже есть ряд готовых предложений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которые мы можем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им представить,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Валерий Дубровский.

Команды-победител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закрытой Акселера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е, в которой создадут «упакованные продукты», готовые к реализации, с экономически обоснованными мастер-планами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х кластеров на особо охраняемых природ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и прилегающих к ним площадках. Далее эти проекты представят потенциальным инвесторам и экспертам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Их реализацию поддержат Минприроды РФ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РФ.

Топ-6 территорий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получат наставников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траектории развития, которыми станут корпорации, профиль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деловые объединения.

Видеоролик о конкурсе, а также имиджевые видеоролики команд-победителей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конкурса в разделе «Конкурс» и на YouTube-канале оператора конкурса,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ЦЕНТР», в плейлисте проекта.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явила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2 проекта, второй «Южные Курилы» — тоже вышел в финал, однако не вошел в ТОП-10.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по созданию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х кластеров и развитию экотуризма в России был иницирован и проводился Агентств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 также Ростуризм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ы-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мятник мира в Берлине, посвященный женщинам, должен мирно существовать

В Германии памятник женщинам мира, изначально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месте 28 сентября гражда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Korea Verband e.V., ведущей деятельность за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овместно с раз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через 10 дней после установк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круга Митте в Берлине, утверждая, что тема памятника женщинам мира,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с официа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властей Берлина, отличается от основной цели,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уведомил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его демонтажа в добровольном порядке до 14 октября,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его принудительно демонтируют и потребуют оплату расходов за демонтаж.

Понимаем, что такое уведомление от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круга Митте есть результат прямого требования МИДа Японии от МИДа Германии демонтировать памятник женщинам мира. Это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Япония ничего не помнит и ни о чем не сожалеет, а Германия, к тому же, допускает такое поведение и подавля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становление памятника женщинам мира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месте на добровольных началах граждан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в Берлине, где раскаяние и память о Холокосте и его жертвах художественно воплотилась в возведе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кругами Мемориала, несет еще больший смысл как олицетворение жажды миролюбия, гражданских прав и мира. Ведь этот памятник, как образ проблемы войны и женщин, вносит вклад в культуру памяти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урока Берлина.

Сл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 что свободный и артистический город Берлин под давле-

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е не расплатилось за прошлые дела, требует демонтировать памятник женщинам мира,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 общих интересах совместно с гражданами. Кроме того, такое решение невозможно понять и оно разочаровывает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желают свободы, мира и единени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мирному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Региональные Советы по мирному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в Европе, Среднем Востоке и Африке, ведущие публич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за мир, видя эту, достойную сожаления, ситуацию, с прискорбием обращаются со следующим:

— *Памятник женщинам мира, олицетворяющий собой проблему войны и женщин, — это голос людей, стремящихся к всеобщему миру!*

— *Установление памятника женщинам мира в Германии, которая сожалеет о прошлых делах и идет по пути мира, полностью справедливо, а его разрушение под давлением Японии, которая не раскаивается за прошлое, несправедливо!*

— *Демонтаж памятника женщинам мира,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обычных людей, любящих культуру и искусство, нарушает свободу и мир, и необходимо немедленно это остановить!*

12 октября 2020г.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е Советы по мирному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Европы, Сред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фрик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к Чон Бом,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Ким Бон Чэ,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в Англии Чан До Сун,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Хо Чжун Ёнг, пред-

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в Северной Европе Ли Ги Чжа,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Ким Сон Тхэк,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в Южной Европе Ли Сан Му,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Ли Ёнг Чхэ,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на Среднем Востоке Ким Чом Бэ,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Кан Дон Чж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в Африке Чон Сун Чхоль,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Им Чхан Су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в г. Москве Ю Ок Гён,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Чхве Чин С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в г. Владивосток Хван Дон Ён,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Пак Чон Ху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Хо Сон Хэн,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Ю Ин Ёнг,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Испании Пак Чхон Ук,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Италии Пак Санок,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г. Берлин Чан Гук Хёна,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Австрии Ким Ман Сок,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Скандинавии Хан Хи Ёнг,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Египте Ли Чжин Ён,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Кувейте Хён Бон Чхоль,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на востоке Африки Но Ёнг Кван,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на юге Африки Ким Чжин Ёй,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о Сон Чжун,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на Украине Чо Юн Донг,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Казахстане Ким Сан Ук, руководитель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вета в Кыргызстане Чон Чи Сон,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Ли Сук Ёнг,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Ким Тхэ Гон,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культуре Чхве Гён Х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Ким До Вон,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внешн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Ли Сон Ук,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планированию и продвижению Ли Миран и все члены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평화롭게 존재해야"

지난 9월 28일, 독일 최초로 공공장소에 세운 소녀상이 설치 10일 만에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반도 평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 e.V.)가 다양한 인권 단체와 연대해 철거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베를린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이 기존의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10월 14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이같은 미테구청의 통보는 일본 외무성이 독일 외교부에 직접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안은 기억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독일 또한 이런 행태를 용인하며 시민사회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

민간 단체와 개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홀로코스트 과거를 반성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추모의 공간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반전, 인권, 평화에 대한 미래적 열망을 구현한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설치가 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소녀상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의 문제를 형상화함으로써 베를린 기억문화와 역사적 교훈에 한 차원 더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예술적인 도시 베를린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국가의 압력에 의해 주민들의 연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또한 자유와 평화와 연대를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평화통일의 가치 아래 평화공공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상황을 목도하며, 통탄한 심정으로 아래 내용을 호소한다.

- 전쟁과 여성의 문제를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은 인류 보편적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 과거사를 반성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독일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압력에 의해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세운 평화의 소녀상 철거는 자유와 평화를 깨는 일이며 즉시 멈춰야 한다!

2020년 10월 1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부위원장 박종범, 간사 김봉재, 영국협의 회장 장도순, 간사 허준영, 북유럽협의회장 이기자, 간사 김성택, 남유럽협의회장 이상무, 간사 이용채, 중동협의회장 김점배, 간사 강동진, 아프리카협의 회장 전순철, 간사 임창순, 모스크바협의회장 유옥경, 간사 최진석, 블라디보스톡협의회장 황돈연, 간사 박정훈, 중앙아시아협의회장 허선행, 간사 유인영, 스페인지회장 박천옥, 이탈리아 지회장 박상록, 베를린지회장 장국현, 오스트리아지회장 김만석, 스칸디나비아지회장 한희영, 이집트지회장 이진영, 쿠웨이트지 회장 현봉철, 아프리카동부지회장 노영관, 아프리카남부지회장 김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지회장 노성준, 우크라이나지회장 조운동, 카자흐스탄지회장 김상욱, 키르기즈스탄지 회장 정지성, 여성분과위원장 이숙영, 청년분과위원장 김태균, 문화분과위원장 최경하, 교육분과위원장 김도원,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이성욱, 기획홍보분과위원장 이미란 외 자문위원 일동

블라디보스톡, 제9회 국제 한국학 컨퍼런스 개최

지난 10월 2-3일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블라디보스톡 한국학 센터와 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과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 한국학연구원의 후원으로 제9회 국제 한국학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한국학연구원에서는 올해 뿐만 아니라 2000년, 2004-2005년, 2010년, 2016-2019년에도 국제 한국학 컨퍼런스 개최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러시아 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여러 대학과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하바롭스크·노보시비르스크·우랄·이르쿠츠크 대학교, «North-East Asian Military Studies Project» 재단에서, 한국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서경대학교에서 참가하였고, 그 외 체코대학교, 영국대학교 등의 교수와 연구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MS Team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면 및 원격 혼합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극동연방대학교 동양학대학 예.베. 뽀스포보이트 학장,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총영사관 오성환 총영사, 극동연방대학교의 동양학대학 해외 및 지역연구학과 등의 예.엠. 예르몰라예와 한국학과장 등 내빈들이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학과 교수 이.아. 톨르소토콜라코브는 극동대학교에서 한국학의 연대기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다.

대회에 약 9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술회의는 "한반도의 실제 문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어와 문학", "한국의 경제 및 경제협력" 등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대회 참석자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한반도와 관련된 과학회의가 러시아 한국학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만장일치로 언급했으며, 동양학대학-해외 및 지역연구 한국학의 발전과 성공을 바라고, 내년 5 월에 열리는 제10회 국제 한국학 컨퍼런스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표명했다.

지난 몇 년간의 전통을 깨고, 5 월이 아닌 10 월에 제 9회 국제 한국학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유는 올해 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과 설립 25 주년을 기념하는 데에 있다.

1995 년 10 월 2 일, 25 년전 극동국립 대학교 대한민국 기업 '고합'의 장치혁 회장의 협력으로 한국학대학원을 개교할 수 있었다. 장치혁 회장의 부친 장도빈씨는 독립 운동가로 알려져 있으며, 과학자 및 언론인으로도 활동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수년간의 삶을 보냈다고 한다. 이 대학 설립은 러시아와 대한민국간의 최초의 교육투자 프로젝트가 되었다.

2020 년은 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 발전에 있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120년전, 러시아 극동 고등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극동연방 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동양학대학 설립으로 세계 최초의 한국 문학과가 개설되었다. 이로써 블라디보스톡 한국학 센터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한국어 및 한반도 경제, 역사, 문화 등 전문가 수백명이 배출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9 월 4 일에 극동연방대에서 세계 최초 한국 문학과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이 열렸다.

바딤 아쿨렌코, 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 강좌 교수, 역사학박사
번역: 이 잔나, 태평양국립대학교(하바롭스크), 언어 및 다문화간 강좌 교수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코르사코브 구역 오픈 모토크로스선수권대회

1941~1945년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을 기리는 오픈 모토크로스선수권대회가 지난 10월 18일 푸시스티 비행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흄스크, 우글레고르스크, 고르노자위드스크를 대표하는 선수 5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팀 및 개인전에서 속도와 크로스컨트리 능력을 겨루었다. 선수들은 2km의 트랙을 두바퀴 진행하면서, 멋지게 회전하며 트림펄린으로 뛰어올라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수상자들에게는 순위에 해당하는 상장과 값진 부상을 전달하였다고 코르사코브 구역행정부에서 전했다.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по мотокроссу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 мотокроссу, посвященное 75-й годовщин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одов и 75-й годовщин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ошло 18 октяб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эродрома Пушистый.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5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ивы, Холмска, Углегорска, Горнозаводска.

Опробовать свой мотоцикл на скорость и проходимость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смогли как в командном, так и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За два заезда спортсмен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ойти трассу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два километра, достойно войти в повороты и удивить восхищенную публику прыжками на трамплинах.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награждены грамота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тепеней, ценными и сладкими призами, сообщае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소방관과 어린이들, 쿠릴의 바란스키 화산 길에 자작나무 심어

이투루프에서 소방관,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바란스키 화산 근처의 이전 채석장 지역에 자작나무, 마가목, 단풍나무, 낙엽송 등을 심었다. 섬 주민들은 올해 8월 시작된 '숲을 구하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태 플래시몹을 진행하였다.

행사에서 총 5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머지않아 양식농가 마을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작은 숲이 생겨날 것이다. 이 조치는 임업을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쿠릴스크의 교육기관과 부레웨스트니크 마을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임업 검사관의 업무에 대해 깊이 배우고 있다.

"이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쿠릴스크

어린이들 및 지방 재판소 직원들도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크라스니 마야크' 신문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보도했다.

'숲을 구하라' 캠페인은 11월에 끝난다. 이 행사는 매년 전국에서 열린다. 올해 약 4,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Бойцы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и дети засадили дорогу на курильский вулкан Баранского березами

На Итурупе бойцы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школьники и волонтеры посади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карьера у вулкана Баранского березы, рябины, клены и липовники. Островитяне провели экологический флешмоб в рамках кампании «Сохраним лес», которая началась в регионе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сего высадили 50 деревьев. В скором будущем небольшой лесок появится всего в двух километрах от поселка рыбоводов.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акция вызвала у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в ряды школьных лесничеств. Ребята из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урильска и села Буревестник с малых лет вникают в работу инспекторов. «Акция продолжится.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также дошколята и сотрудники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ного суда», — сообщили в Instagram-аккаунте газеты «Красной маяк».

Кампания «Сохраним лес» завершится в ноябре. Она проходит ежегодно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ют высадить порядка 40 миллионов деревьев.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재외동포재단, 국내 초·중·고 교사 재외동포 이해 제고 연수 개최

재외동포재단(한우성 이사장)은 10월 16-17일까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국내 초·중·고 교사 대상 재외동포 이해 제고'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국내 교사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지속 확산하기 위해 교사 대상으로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지역 초·중·고 교사 30명이 참가한다.

참가 교사들은 재외동포 이해 특강(재외동포의 역사 및 활약상 등),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생생 Talk, 교사 간 분임토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효과적 교육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이번 첫 연수를 시작으로 교육 현장에서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지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중·고 교사 대상 연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국내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연수 준비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17.12.19)하였고, 양 기관 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당초 오프라인 연수 계획을 온·오프라인 연수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20세기 후반기 사진: 과거로 여행

지난 주에 <러시아, 나의 역사> 박물관에서 <잊혀진 일기>라는 사진전이 열렸다. 전시된 사진 52장이 이미 기억이 잘 나지 않는 20세기 후반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일을 사려고 줄서는 사람들, 광장들에서 진행되는 소련공산당 행사, 명절 행진들, 결혼식, <고르니 위스두흐>스키장, <필리스>태풍 복구 작업 등등이다. 이 사진들을 임 아나톨리, 보리스 그레벤니코브, 사미굴라 구방돌린, 아르세니 로파틴, 알렉산드르 자흐바토브, 일리아 토카레브 등 총 6명의 사진가들이 찍었는데 이 사진들을 수집하고 인쇄하는 사람은 <리스트>사진작업실 대표 알렉산드르 가이보론이다.

이 사진전은 11월 9일까지 열릴 것이며 입장은 무료다.

(취재: 이예식 기자)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1 г. — **551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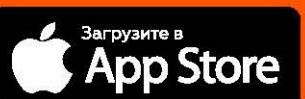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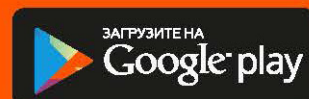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з.у.п.) Бя В.И.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